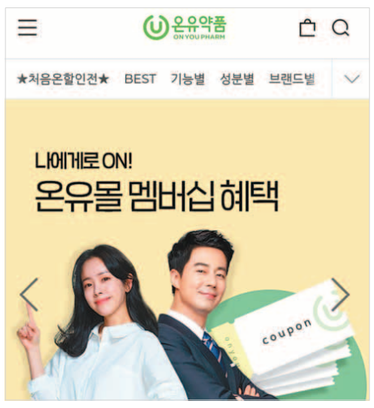
건강기능식품업계, 시장 주도 新중장년층 공략 강화

“경제력+자기관리 ‘오팔세대’를 잡아라”

건기식업체들, 신제품·서비스 강화
천호엔케어, 태반콜라겐 제품 출시
휴온스, 자사몰 오픈해 경쟁력 UP
풀무원, 개인 맞춤제품 추천 서비스

외모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유행 트렌드에 민감하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에 능숙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는다. 좋아하는 것에는 돈이나 시간을 과감하게 투자한다. SNS로 활발하게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요즘 MZ세대라고 일컫는 2030세대에 대한 소개가 아니다. 일명 ‘오팔(OPAL) 세대’라고 부르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며 소비 주축으로 떠오른 새로운 중장년세대를 설명하는 말이다.



온유약품이 최근 오픈한 모바일 자사앱.

●피부관리, 노화방지 등에 적극적

오팔(OPAL)은 적극적인 삶을 사는 중장년 세대를 뜻하는 ‘Old People with Active Life’의 앞 글자를 모아 만든 신조어다. 오팔세대는 경제력을 갖춘 5060세대로 과거와는 달리 취미생활이나 자기관리에 적극적이다. 단순히 구매력만 큰 것이 아니라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찾는데 익숙하고, 이를 잘 활용한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구매층이다.

특히 오팔세대는 자신의 취향을 정확히 알고, 시장에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실천력이 있다는 점에서 예전 중장년 세대와 차이점을 보인다. 이런 오팔세대는 요즘 패션, 뷰티, 헬스 등에서 주목해야할 중요 소비자층으로 부각되고 있다.

상반기 대목 시즌인 5월 가정의 달을 앞둔 건강기능식품업체가 주목하는 것도 오팔세대다. 천호엔케어가 내놓은 ‘바이탈-업 태반콜라겐’은 외모관리에 신경쓰는 오팔세대 특성에 주목한 건강기능식품이다. 피부관리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양태반과 콜라겐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호주산 양태반추출액을 83%, 1병 당 1만6600mg 함유했다.

천호엔케어 관계자는 “오팔세대로 대변되는 신중년은 스스로를 가꾸고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인 것이 특징이어서 자신을 가꿀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센스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자사몰, 맞춤형 서비스로 공략

오팔세대가 인터넷 사용에 능숙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검색에 적극적인 특성에 주목한 기업들도 있다.

온유약품은 최근 온유약품 공식앱을 론칭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온라인을 통한 쇼핑이 증가하면서 오팔세대를 비롯한 소비자를 적극 공략하기 위해 자사앱을 오픈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은 물론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채팅인 채널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온유약품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앱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고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기식을 구입하는 등 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휴온스도 최근 자사몰 ‘휴온스몰’을 오픈했다. 휴온스는 코로나로 소비 흐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백화점, 오픈마켓 등 대형채널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사몰을 통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자사몰을 활용해 소비자와 직접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친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휴온스몰에서는 여성 갱년기 건강기능식품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를 비롯해 ‘루테인 지아잔틴’, ‘탱탱 엘라스틴 콜라겐’, ‘포스트바이오틱스’ 등 자사몰 전용 제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곳도 있다. 풀무원건강생활의 ‘내게 맞는 영양성분 찾기 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을 체크해 최적화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최근 쿠팡의 플랫폼을 통해 기획전 형식으로 시범운영했다. 총 32개 문항의 설문을 완료하면 개인별로 필요한 최적의 영양 성분을 추천해 준다. 풀무원건강생활이 영양학 석박사 15인과 외부 약사 등의 협업을 통해 개발하고 약사 100명의 테스트를 통해 전문성까지 확보했다는 건강 설문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외모관리에 신경 쓰는 오팔세대 특성을 겨냥한 천호엔케어의 ‘바이탈-업 태반콜라겐’을 소개하고 있는 브랜드모델 장윤정. 사진제공 | 천호엔케어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재택근무로 목·허리 통증 직장인 늘어
초기에 주사·도수치료 등으로 호전 가능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목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은 잘못된 자세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 목, 허리 통증을 비롯해 어깨, 팔다리에 무리가 가기도 한다. 이러한 습관은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근골격계 질환은 노년층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늘면서 20, 30대에게 더 자주 발생되고 있다.

목, 허리 통증은 초기에 주사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법으로도 호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을 치료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법으로 비수술적 치료인 도수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도수치료는 통증이 있거나 체형이 틀어졌을 경우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다. 일자목, 거북목, 척추측만증, 허리디스크 등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도 적합하다. 전문 치료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 도구를 이용해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치료사에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별 통증 부위와 통증 정도가 달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충분한 상담 후 개인별 맞춤 진료를 진행해야 한다. 평소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좋고, 바른 자세로 업무를 보는 것이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미사 하남탑정형외과 **오정석** 대표원장

백병원, 근로자의 날 맞춰 전 직원에 제로페이·지역화폐 지급

인제대학교 백병원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맞춰 30일 전 직원 7809명에게 1인당 5만원씩 3억 9000만 원의 제로페이와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제로페이는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과 서울, 경남의 지역상품권이다. 지역화폐는 일산백병원이 위치한 고양시 고양페이, 파주시 파주페이, 부산백병원과 해운대백병원이 있는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 등이다. 직원이 희망하는 상품권(화폐)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 | 백병원

분당차병원, 블록체인 기반 신약개발 협약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글로벌임상시험센터는 제이앤피메디와 블록체인 기반의 신약개발 및 임상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이후 양측은 분당차병원 글로벌임상시험센터가 진행하는 임상시험과 연구자 임상시험(IIT)과 관련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사용되는 증례기록서(CRF)를 디지털 데이터화해 임상시험자와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씨젠, 스코틀랜드에 코로나 진단키트 공급

씨젠이 이탈리아에 이어 영국 스코틀랜드에도 1600만 파운드(약 247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사진)를 공급한다. 씨젠은 스코틀랜드 정부 산하 NSS(국가 의료보험기구)를 통해 4월부터 에든버러 RIE 병원을 포함한 스코틀랜드 9개 대형 병원에 코로나19 진단제품을 제공한다. 이번 공급은 스코틀랜드 정부가 진행한 코로나19 진단시약 입찰 중 가장 큰 규모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광동제약, ‘생물자원 활용 특허기술’ 이전 협약

광동제약은 제주테크노파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기술이전 관련 협약을 체결(사진)했다. 이번 기술이전은 2018년 광동제약이 두 기관과 특허출원 및 정부과제 추진을 목표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나온 성과물이다. 광동제약은 ‘제주자생식물을 이용한 면역개선 소재’ 및 ‘담수생물 소재를 활용한 인지 및 기억력 개선 조성물’ 특허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두 기관으로부터 이전받는다. 광동제약은 두 소재를 활용해 면역력과 인지·기억력 개선을 위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4월 29일(목) 음력: 3월 18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청색 길방:동	소 행운색:흰색 길방:서	호랑이 행운색:적색 길방:남	토끼 행운색:적색 길방:남	용 행운색:흰색 길방:서	뱀 행운색:청색 길방:동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복잡한 인간관계도 청산하라.	썰물의 배는 물이 차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이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산기슭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낮춤으로써 산은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이 열린다. 오늘은 반안일이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기운이다.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나의 운기가 쇠해서 시류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방도이다. 무리하게 뚫고 나가려 하지 말고 쇠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취침 시 북서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야심이 너무 크고 계획도 웅대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겠지만 자제하라. 협력자를 얻으면 의외로 발전하고 대성할 수 있는 운이다. 매사 모든 일이 될 듯 될 듯 안 된다. 무모함이나 자신감으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말 행운색:청색 길방:동	양 행운색:흰색 길방:서	원숭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닭 행운색:검정 길방:북	개 행운색:흰색 길방:서	돼지 행운색:흰색 길방:서
일의 성사가 어려운 날이다. 사리사욕을 떠나 정의를 관철해 갈 것, 또한 자기 기반을 굳게 닦고 실행할 것, 가급적 폭력은 피하라.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오늘의 기운은 인간의 감각이 발동하는 날이므로 연애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자유분방한 날이다.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모든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겠고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으니 서서히 자기 패이스대로 나아가라. 신중하고 묻기를 거듭해야 한다.	자신의 노력이 통하지 않고 가을바람에 발가벗겨진 나무가 추위에 떨고 있는 상태로 기력이 회복되고 운세가 호운으로 전환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남의 보증을 서지 마라. 반드시 재산상의 손실을 본다.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이익이 생길 수 있다.	자신의 능력에 비해 꿈이 큰 날이다. 앞으로 운이 좋아지는 때이나 모든 일에 지나치기 쉬우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는 충분히 앞날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급속히 성하고 곧 쇠하는 경향이 있어 시기를 보는 바가 민감해야 한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미련 있는 일이라도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이 나중에 손해가 적다. 무슨 일이든 앞장서지 말라. 욕심을 부리면 큰 재난이 온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오늘의 날씨 29일(목)

서울 20/30 12 21	인천 20/30 12 18	춘천 30/30 9 21	
강릉 30/60 12 19	대전 20/20 12 23	전주 20/20 12 23	
광주 20/20 13 24	대구 20/60 14 23	부산 20/20 14 21	
창원 20/60 13 24	제주 20/20 15 23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날씨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68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